



한국 뉴리더 방일단 초청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한국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청하여 강의 청강, 기업 및 대학 방문, ‘국교정상화 60주년, 앞으로의 일한교류를 위해’라는 주제에 맞춘 각종 시찰, 교류 등을 통해 일본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향후 일한 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참가자】 한국 대학생 총 34명 (단장 1명, 인솔자 1명 포함)

【방문지】 사이타마현, 도쿄도, 히로시마현 총 34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학습):

12월 5일(금)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참가자 대외 발신

■ 초청 프로그램:

12월 20일(토)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방일 당일 오리엔테이션, 사이타마현으로 이동

12월 21일(일) 【시찰·강의】 고마신사 ‘고려군 건군 1300+10 년을 향하여~도래에서 미래로’
도쿄도로 이동

【시찰】 도쿄국립박물관

12월 22일(월) 【예방·강의】 외무성 ‘최근의 일한 관계’

【방문】 주일한국대사관

【시찰】 이수현 씨 추모·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현장 답사

12월 23일(화) 【기업방문】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

【교류】 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토크 세션

12월 24일(수) 【대학 방문】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 캠퍼스

【시찰】 국회의사당

12월 25일(목) 히로시마현으로 이동

【예방·강연】 히로시마현청 ‘히로시마의 매력’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12월 26일(금) 종일 홈스테이

12월 27일(토) 홈스테이 해산식

【강의】 피폭체험 강연

【시찰】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평화기념공원(원폭돔, 한국인원폭 희생자 위령비 등)
액션플랜 및 소감 보고회

12월 28일(일) 히로시마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p>12월 21일 【시찰·강의】 고마신사 ‘고려군 건군 1300+10 년을 향하여~도래에서 미래로’</p>	<p>12월 22일 【예방·강의】 외무성 ‘최근의 일한 관계’</p>
	
<p>12월 22일 【예방】 주일한국대사관</p>	<p>12월 23일 【기업방문】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p>
	
<p>12월 23일 【交流】 【교류】 일한문화교류기금 주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p>	<p>12월 24일 【대학 방문】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캠퍼스</p>
	
<p>12월 25일 【예방·강연】 히로시마현청 ‘히로시마의 매력’</p>	<p>【교류】 홈스테이 대면식</p>

	
12월 27일 【강의】 피폭체험 강연	12월 27일 【시찰】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3.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대학생

이번 일정은 일본과 한국의 교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신사에서는 한일 교류의 역사와 그 흐름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며, 과거 도래인의 역사와 양국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한일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쿄국립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유물과 전시를 관람하며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교과서나 자료로 접한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진행된 ‘최근의 일한 관계’에 관한 강의와 주일한국대사관 방문을 통해 양국 외교 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주최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과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 회장의 강연을 통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도 깊게 느껴졌습니다.

◆ 한국 대학원생

일본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한 사람(혹은 여러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게이오기주쿠대학 방문 당시 일본 대학생들과 만난 것이 좋았습니다. 저와는 달리 이미 지금까지 한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 한국 대학생

고마신사를 방문하며 일본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에서의 생활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일본측 소감 (발체)

◆ 히로시마현청

히로시마현의 한국인 국제교류원을 통해 ‘히로시마현의 숨겨진 보물’이라는 주제로 히로시마현의 풍부한 자연과 식문화, 전통예능 등 히로시마현의 매력 소개와, 2025년 11월 우호 결연을 맺은 경상북도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일단 여러분께서는 국제교류원의 시각에서 본 히로시마현의 인상이나 관광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으며, 히로시마에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다시 히로시마를 방문하셔서 히로시마의 매력을 더욱 느껴보시길 바라며, 장차 일한 우호의 가교가 되어 활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사히그룹홀딩스 주식회사

아사히그룹의 철학과 사업·역사, 그리고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연사인 고지 회장의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커리어에 관한 질문부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 ‘주류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전략’,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브랜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 걸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뉴리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일한 관계 구축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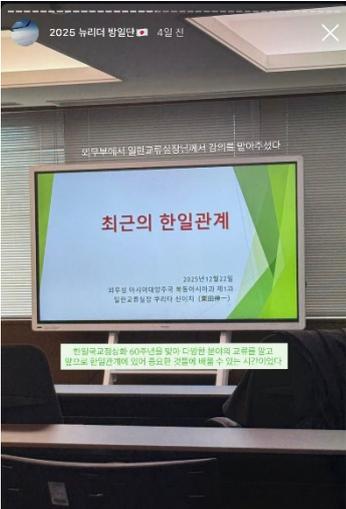
◆ 게이오기주쿠대학 니시노 준야 교수

지난번(2025년 2월)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 함께 엄중한 국제 정세 속 일한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얻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40분, 질의 응답은 50분 정도였지만 수준 높은 질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학생들이 국제 정세와 일한 협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일한 관계의 미래를 책임져주길 기대합니다.

◆ 에타지마시 홈스테이 가정

한해의 끝자락에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특별한 순간 “우리 일본 할머니”라며 손을 맞잡고 흘린 눈물의 온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차세대 한국을 이끌 리더로서 일한 우호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일간의 알찬 일본 방문, 그리고 시찰 후 홈스테이에서는 바다로 둘러싸인 에타지마의 자연을 거닐며 가족처럼 어우러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원과 마음은 국경을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유대감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만남이었기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5. 참가자 대외 발신(발취), 보도기사 등

<p>거주. 일본에는 편의점보다 많은 수의 결과 신사가 있다고 있는데 고마신사가 고구려계 도래인의 경수를 담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사와 절들이 각각의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본의 문화로서 전승·이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어가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국가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일본의 기록과 전승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사나 테라같은 종교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집안의 가업을 잇는 것, 또 이번에 정말 반스로 일본 구성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발견 한 것인데 묘지가 신이나 깊은 곳에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공동 묘지같은 시설들이 마을의 생활권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누 문화에서도 무덤을 마을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두면서도 있고 지내는·명절에 고백 방문하는 한국과는 다른·그런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낀 바기도 하지만,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의 외식구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	--

<p>2025년12월21일 (Blog)</p> <p>고마신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사와 사찰이 각각의 역사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의 ‘전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기록과 전승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라는 의미가 아닌 듯 합니다. 가업을 잇는 일이나, 한국처럼 묘지가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생활권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의식 구조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p>	<p>2025년12월22일 (Instagram)</p> <p>외무성에서는 일한교류실장의 강의를 청강했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한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p>
 <p>♡ 👍 🔄 📌</p> <p>ruu20180901他在「いいね!」しました nicky_kr1 #뉴리더방일단 8일자. 방일단으로서의 마지막 일정.</p> <p>2박 3일의 홈스테이를 마치고 이도식 (雁島式)을 진행한 후 에타지마를 떠나 히로시마 시내의 평화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8시 때 원폭 투하를 경험하신 분의 강연을 들으며 평화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새겨줍니다. 강연을 들은 후 히로시마평화 오코노미야카를 중심으로 먹었습니다.</p> <p>점심식사 뒤에는 자료관을 관람하고 평화기념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한국인 위령비에도 갔고,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같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호텔에서는 회의실에서 조별로 소감과 액션 플랜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수료증도 받았습니다. 방일단의 정규 일정을 마친 후 자유 시간이 주어지자 저녁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건 출국뿐. 閉じる</p>	<p>☞</p> <p>너무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p> <p>왜 SNS 포스팅이 중요한가. 일본의 발전과 기록의 문화를 특히 느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그런 대상을 상경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말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보여주는 것은 보여준다면 그 목적이 끝나서 소멸하지만 남겨두는 것은 소멸에 대한 저항. 두고두고 살아가는 것. 도쿄국립박물관과 히로시마 원폭 돔, 평화기념자료관에서 느꼈음. 일본인으로서 잊는 것이 아니라, 두고 살아가는 것. 한국과 일본인의 관념에 대한 깊은 차이를 느꼈다. 일본 전쟁을 함으로서 느끼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는 여러 공통점들. 한자, 농경문화로 다양한 공통점.. 그런 걸로 시작해서. 방금 말했던 사스해 보이지만 중요한 관념에서의 차이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 이번 방일단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 차이를 알아가는 것. 타자를 느끼는 것에서 관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구라 대사님의 한일관계 대한 인식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정말 공통점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당장의 이익만 보고 가는 것은 교류가 아니라 유착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저출산 고령화 같은 초국가적인 담론을 다루는 것은 위험한 생각. 차이와 공통점 사이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게 관계 발전이자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가 될</p>
<p>2025년12월27일 (Instagram)</p> <p>8살 때 피폭되신 분의 강연을 청강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과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관하며 핵무기 사용과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p>	<p>2025년12월27일 (Blog)</p> <p>일본에 대해 전공하다 보면 한일 간 공통점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관념상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사이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 관계 발전이며,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p>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췌 내용 기재)

 <p>액션플랜 1월 ~ 3월</p> <p>1월: 발신 경험과 인사이드의 정리 및 확산 시기</p> <p>2월: 집약 한일관계 집중 탐구 및 정상회담 의제 발로업</p> <p>3월: 확대 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내용의 콘텐츠 제작</p>	<p>지속 가능한 한·일 교류를 향한 로드맵 지속적인 한일 교류를 위한 장기 목표</p> <p>2025 NEW LEADER 발명단 2026 방일 관련 SNS 포스딩 2027 친구 먼저 교류 교류 2028 일본이 지켜주려 2029 실무직 전문교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과 관심 분야에서 일본의 한국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기 2. 한일 교류를 위한 일본어 공부 시작 및 자격증 취득하기 3. 한국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일본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또는 일본 내 업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일 간 연결가리를 지속적으로 확장
---	---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쿄국립박물관과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그리고 방일 중 일본 분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느낀 점은 일본의 기록 문화는 ‘보여주기’보다는 ‘남기기’에 가깝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소통을 시도한 덕분에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 해소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참여를 통해 한일 양국 학생 간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p>【액션 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한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전환점과 미래 전망을 도출함과 동시에 안보 협력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여 통찰력을 높이겠습니다. ·방일 기간 중 SNS 에 게시한 기록과 개인적인 생각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개인적인 일본어 학습 기록, 문화 체험, 강연 청강 후의 생각 변화까지 모두 담아, 방일 경험을 일회성 추억으로 끝내지 않고 오래도록 남을 기록으로 보존하겠습니다. ·아사히그룹홀딩스가 해외 진출 시 전략적 자금 조달 방법을 연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그 성공 요인과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예시와 용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p>【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나 외교를 중심으로 고착화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포지엄 참여를 통해 민감한 주제일지라도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 보다 직접 만나 교류하는 것이 선입견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핵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는 한국인으로서 반핵 운동과 원폭 생존자 증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피폭 체험 강연을 청강하면서 직접적인 만남이 편견을 없애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생활을 체험하고, 일본 사회의 새로운 면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해온 일본 문화의 틀을 넘어,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p>【액션 플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일 기간 중 방문한 지역과 배운 점, 홈스테이에서 경험한 점 등에 대해 대학 신문에 기고하겠습니다. ·일본 대학생과 함께 도쿄 도내에서 필드워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한일 교류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본 대학원 석사 과정 진학이나 한국 국내에서 취업한 후에도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본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겠습니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